

#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大學의 位置와 課題



金 俊 煥  
(高麗大 總長)

## I.

傳統的인 社會에 있어서는 大學의 理念과 課題를 設定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大學은 大部分 貴族階級의 子弟들이었던 豫備엘리트들에게 指導의 人物이 될 수 있는 知識과 資質을 涵養하게 하여 배출하는 일을 주된 社會的 機能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傳統的인 大學들은 入學資格에 있어서도 엄격한 制限을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敎育內容에 있어서도 支配 엘리트의 養成에 필요한 人文敎育이 中心이 되었다.

그러나 學問과 知識은 學問外的 權威로부터 自由로와야 한다는 本來的인 性格으로 인해 大學은 政治나 宗教와 같은 權力을 지닌 制度의 統制를 벗어나 自律性을 確保하기 위한 오랜 鬭爭을 계속해 왔었다. 그 結果, 傳統社會의 大學들은 知的 自律性과 엘리트敎育이라는 두 개의 基本的 理念을 中心으로 하여 그 性格이 規定되어져 왔다.

그러나 産業化되고 市民社會화된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大學들은 더 이상 傳統的인 大學의 理念과 性格을 固守할 수 없게 되었다. 大學은 象牙塔이라는 말이 象徵하는 바와 같은 어느 정도 社會로부터 距離를 두고 孤高한 地位를 享有할

수 있었던 立場을 버리게 된 대신, 社會와 大學 사이의 壁을 헐어버리고 産業社會가 必要로 하는 수 많은 專門의 知識人을 養成하는 機關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大學은 이제 支配的인 階級에 奉仕하는 地位를 버리고 全體社會를 위해 敎育의 機能을 수행하는 制度로서의 性格을 確立하게 된 것이다.

産業社會의 要求에 따라 大學의 數는 急激히 增加하였을 뿐 아니라, 大學의 門戶는 모든 階層의 사람들에게 開放되었고 敎育의 內容도 市民의 資質을 形成하기 위한 敎養敎育과 專門的 職業人의 養成을 위한 專門敎育을 中心으로 改編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現代의 大學敎育은 일단 大衆敎育化하게 된 것이며 傳統的인 大學의 特性이었던 엘리트敎育과 知的 自律性的 要素가 적지 않게 褪色하게 되는 結果를 가져왔다.

## II.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大學이 量的으로 膨脹하게 되고 大衆敎育機關으로서의 性格을 갖게 되어가는 變化에 대하여 抵抗하려 하고 復古主義的인 鄉愁에 빠지는 것은 전혀 無意味한 일이다. 大學은 새로운 社會環境에 適應하여 能動的으로 貢獻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社會變動의

方向을 理念的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現代의 大學이 大衆教育機關의 性格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限定한다고 해서 大學教育이 專門職業人의 養成만으로 自足해도 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大學에 있어서의 知的, 教育的 活動은 專門的, 職業的, 道具的 知識의 擴散에 限定되는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서 批判的 理性에 基礎한 理念的, 理論的 知識의 創出에 더 많은 努力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現代社會는 高度로 官僚化된 社會體系로서 매우 能率的인 體系이긴 하지만 專門知識人을 包含하는 거의 모든 社會成員들을 一次元의 人間으로 化하게 함으로써 社會體系의 活力을 잠재우는 逆機能을 招來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鐵憲化해 가는 巨大한 管理社會의 틀을 攻略하고 그것을 人間化해 나아가는 知性的 活動의 發祥地는 아무래도 大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은 現代 產業社會를 管理해 나아가 專門的 知識人을 養成함과 함께 現代文明의 性格과 方向을 끊임없이 批判的으로 檢討함으로써 새로운 文明의 理念을 創出해 나아가는 社會的 機能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다니엘 펠」은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가장 重要한 課題의 하나는 高度로 複合的인 構造를 갖게 된 社會體系에 있어서의 複雜性의 管理(management of complexity)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複合的인 體系의 管理를 위해서는 高度로 抽象化된 象徴을 體系的으로 分析할 수 있는 理論的 知識의 重要性이 強調되지 않을 수 없고, 그와 같은 理論的 知識의 創造機能은 大學과 大學의 研究所일 수밖에 없다고 指摘하고 있다.

大學에 있어서의 基礎的이고 理論的인 研究와 開發은 흔히 非生産的이거나 非效率的인 投資의 對象으로 생각되어지기도 하지만, 實際로는 大學에 있어서의 研究活動 만큼 國民의 生活과 人類의 生活에 重要하고 衡期的인 貢獻을 하게 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오늘날의 先進產業 社會들은 例外없이 大學의 研究所에 가장 優秀

한 頭腦와 가장 優秀한 施設을 갖추어 集中的인 投資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改革과 發見을 創出해 내고 있는 것이다. 醫學, 遺傳工學, 컴퓨터 科學, 海洋科學, 宇宙科學 등의 最尖端을 걷는 科學에 있어서의 가장 基礎的인 理論的 發見은 例外없이 大學의 研究所에서 나오고 있으며, 그것을 應用해서 數많은 技術的 改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現代는 第二의 科學技術革命의 時代라고 불리우고 있거니와 오늘날 끊임없이 開發되고 있는 技術的 改革과 革命은 後期工業社會의 社會構造에도 變化를 일으켜 새로운 文明을 形成해 나아가고 있다고까지 主張되고 있다. 이와 같은 人類文明의 大轉換期에 處한 現代의 大學이 科學的, 理論的 知識의 創造와 理念的 知識의 創造를 위해 先驅者의 機能을 수행하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Ⅲ.

現代社會의 大學이 大衆教育機關의 性格을 더 우게 되었다는 한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大學의 位置와 社會的 機能을 스스로 格下시키고 限定시키는 愚를 犯하여서는 안된다. 大學은 現代社會에 있어서도 最高의 知性的 殿堂이며 가장 새로운 知識을 創造하는 機能을 수행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大學의 位置와 機能에 대한 우리의 認識은 如前히 어떠한 學問外의 權威에 의해서도 支配받지 않는 知的 自律性이 最大限 保障되어야 한다는 것을 確信하게 한다.

政府과 企業은 大學의 創造的 活動을 위해 可能한 最大의 財政的 支援를 제공하는데 인식해서는 안되겠지만, 大學의 知的 自律성과 學問的 權威는 充分히 尊重되어야 한다. 支配階級을 위해 豫備엘리트를 배출해 내는 機能을 수행하던 傳統社會의 大學들도 知的으로는 自律성과 自由奔放함을 보장받음으로써 創造的 機能을 수행할 수 있었고 國家發展과 人類社會에 크게 功獻해 올 수 있었다. 하물며 科學的 知識이 가장 重要한 社會發展의 原動力이 되고 있는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大學의 學問的 自律성은 더욱 切

實하게 要請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現代社會에서 學問과 知的 活動의 自律性을 確保하기 위해 大學이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現象은 역시 現代社會의 官僚制化의 傾向인 것이다. 現代社會가 官僚制化하면 할수록 官僚制的 組織의 中心은 大學을 統制와 管理의 對象인 下位體系로 看做하게 되고, 大學은 人力需給計劃을 充足시키기 위한 人的 資源의 供給機關으로 轉落되기 쉽기 때문이다.

大衆教育機關으로서의 現代의 大學은 이처럼 巨大한 官僚組織體系의 下位體系로서 格下되는 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大學이 就業을 위해 必要로 하는 資格證을 發給하는 公認된 機關으로 認識되는 結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와 같이 政府와 大衆으로부터 다같이 格下된 地位만을 부여받게 되면 그와 같은 大學은 大學의 本來的 機能이라고 할 수 있는 創造의 機能의 弱화를 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現代社會의 大學이 當面하고 있는 가장 큰 危機는 大學의 量的 膨脹으로 인한 巨大化와 大衆化에 있다기 보다는 바로 위와 같은 官僚制化社會 속에서의 創造의 機能의 弱화에 있다 할 것이다.

官僚制化되고 大衆화된 現代社會 속에서 大學이 知的 自律性과 創造의 機能을 계속 維持하고 活性化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大學을 단순한 高等教育機關으로 認識하기 보다는 教育과 함께 研究의 機能을 遂行하는 科學的 活動의 中樞機關으로 認識하는 大學觀이 明確하게 定立되어야 한다. 自然科學과 人文社會科學을 막론하고 科學的 知識의 創造는 한 社會의 生存과 發展을 위해 가장 重要한 機能이며 그와 같은 機能을 담당하는 機關이 바로 大學이라는 認識이 確立되어야 하는 것이다.

現代社會가 知識社會(knowledge society)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科學技術文明社會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 만큼, 現代社會에 있어서 知識과 科學技術의 重要性은 널리 認識되어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知識과 科學技術의 創造와 應用은 흔히 政府의 技術官僚(technocrats), 政府 및 民間 產業體의 附設研究所에 소속된 科學者와 技術者들의 活動에 의하여 充分히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라고 誤認되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政府에서 活動하는 技術官僚의 機能과 大學에서 活動하는 科學者의 機能은 엄연하게 區別되는 것이다. 技術官僚들은 大學에서 創出되는 理論的 知識을 政府의 實際的인 政策決定過程에 應用하는 機能을 수행하는 知識人들이며 大學에서 研究의 機能에 종사하는 學者들은 새로운 科學的 知識의 創造와 發見에만 專念하는 知識人들인 것이다. 이들 두 範疇의 知識人들의 機能과 活動은 現代社會의 管理와 改革을 위해 다같이 必須的인 것이며 한 範疇의 知識人의 機能을 다른 범주의 知識人이 代身 遂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大學內의 知的 創造機能과 自律性은 充分히 尊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IV.

現代社會에 있어서의 大學의 位置와 理念은 당연히 傳統社會의 大學과는 달리 規定되어져야 한다. 現代의 大學은 復古主義的인 大學의 理念에서 脫皮하여야 하며 大學과 社會, 大學과 政治, 大學과 產業體와의 벽을 허물어버리는 進取性을 果敢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大學은 大衆教育機關으로서의 機能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產業社會가 要求하는 專門的 職業人의 養成에 能動的으로 臨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大學은 官僚制化하고 大衆化되는 現代社會 속에서 高度의 創造의 機能을 계속 수행해 나아가 수 있어야 한다. 大學은 現代社會의 巨大한 技術官僚體制의 下位體系로서 계속 增大되어가는 高級機能의 人的資源을 養成해서 배출하는 機能에 自足하기 보다는 現代社會의 構造를 文明史的 視角에서 끊임없이 分析, 批判하며 社會變動의 方向을 提示할 수 있어야 한다. 現代社會의 大學은 또한 끊임없는 理論的 知識의 創造를 통해 社會改革과 技術開發의 궁극적인 源泉이 되어야 한다. 大學이 現代社會에서도 단순히 知識의 教育과 擴散의 機能을 수행할 뿐 아니라 研究와 開發을 中心으로 하는 創造의 機能을 活潑히 수행할 수 있을 때, 大學의 바른 理念과 課題가 設定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